

[찬양과 큐티 11]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

김희석 성가사 / 2001 / 페이지 수: 1

몇 살 때인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의 일로 기억된다. 어머니의 생신이 됐다. 선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것이 없었다. 돈을 모를 때인데도 선물을 사야 한다는 생각에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떼를 썼다.

왜냐고 물으시는 어머니의 질문에 선물을 사려고 한다하니, “내 것 사는데 나한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하시며 거절하셨다. 울며 떼를 써보았지만, 울음도 통하질 않았다. 어떻게 든 선물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나쁜 짓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아이스케끼 파는 형에게로 달려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다. “아이스케끼, 아이스케끼” 외치며 지나가는 형을 세우고 돈을 찾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돈이 없는 것이었다. 열심히 뛰어오다 잃어버린 것이다. 울면서 집에 돌아온 나에게 어머니는 “왜 우리?”라고 물으셨다.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대답하자 어머니는 “돈이 어디에서 났어?”라고 하셨다. 난 “엄마의 주머니에서”라고 말했고 그 다음은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다면 왜 내가 어린 시절에는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 맞았나 하는 것이다(그래서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것일까?)

다 주의 것인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 쓰겠다며 자꾸 달라기만 하니.. 나는 무엇을 드릴까? 아이스크림, 돈, 지식, 아니면 노래 어차피 다 주의 것이고 주가 주신 것인데 항상 나는 고민만 하고 있으니.

주님 나의 향유와 옥합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나의 가장 귀하고 최선의 것으로 돌려 드립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알렐루야...”

* 출처 : 큐티와 일대일